

이찬원 "'나는 반딧불' 3시간 반복 재생...들으면서 울어"

등록 2025.05.26 20:12:00



[서울=뉴시스] JTBC 예능물 '특파원 25시'가 26일 오후 8시 50분 방송된다. (사진=JTBC '특파원 25시' 제공) 2025.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허예지 인턴 기자 = 가수 이찬원이 가수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에 얽힌 사연을 고백한다.

26일 오후 8시 50분 방송되는 JTBC 예능물 '특파원 25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 여정을 담은 바티칸 시국 랜선 여행부터 미국 보스턴, 일본 도쿄 랜선 여행이 펼쳐진다. 황가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황가람은 출연진 중 고마운 인연으로 이찬원을 꼽는다. 그는 "이찬원 씨가 제 노래가 나오면 직접 불러서 영상을 보내주시곤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찬원은 "몸도 마음도 지칠 때 머리를 식힐 겸 여행을 갔었는데 3시간 동안 '나는 반딧불'만 반복 재생했다. 그날 밤에도

노래 들으면서 울었다. 그 노래로 위로와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털어놔 훈훈함을 더한다.

서로 팬심을 고백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답가를 선물한다. 이찬원과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라이브가 펼쳐질 예정이다.

MC 전현무와 김숙이 출장 특파원으로 나선 일본 도쿄 랜선 여행 2탄도 공개된다.

김숙과 일본 특파원은 식료품부터 생필품, 의약품 등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는 일본 유명 잡화점을 방문한다. 오직 일본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한정판 아이템부터 블랙핑크 제니가 추천한 핫한 아이템까지 소개하자 양세찬과 이찬원은 실 틈 없이 메모를 이어가 웃음을 자아낸다.

또한 전현무, 김숙, 특파원은 일본식 철판 요리인 몬자야키 맛집을 찾는다. 인생 첫 몬자야키에 도전한 전현무와 김숙은 몬자야키의 비주얼에 살짝 당황한다.

전현무는 "주말에 강남역에서 많이 발견돼"라며 파격적인 발언으로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비주얼과 다른 몬자야키의 맛에 놀라며 연신 감탄을 표했다고 해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증을 안긴다.

이어 시부야의 대표 랜드마크로 불리는 시부야 스카이라이프에 이어 도쿄 도심의 야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시부야 스카이 전망대도 찾아간다. 전현무와 김숙이 입을 다물지 못한 360도로 펼쳐진 아름다운 야경에 기대가 모아진다.

'나 취 나 취' 코너에서는 김숙이 직접 일본에서 구매해 온 아이템들을 시식하고 쟁취하는 시간이 펼쳐진다. 간편하게 간장 계란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소스와 마늘 참깨 등 아이템이 가득해 출연자들의 승부욕을 자극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ejihur@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